

# 공권력 실추? 시민 기강잡기? ... '공집방' 입건 10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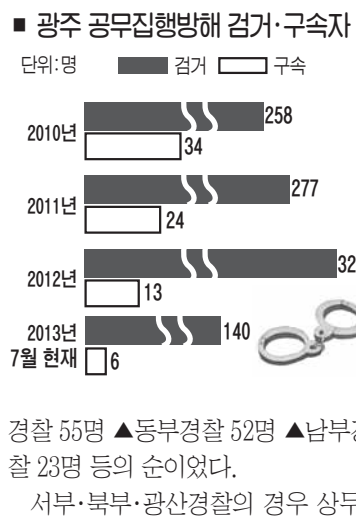
〈공무집행방해〉

광주경찰, 3년간 급증 ... 구속 줄어 '남발' 비판도

상무지구·구시청 등 유흥가 '酒暴'에 많이 적용

공권력 경시 풍조가 심각한 것인가, 과도한 시민 기강 잡기인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검거하는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소극적 방해나 경미한 혐의 등으로 10명 중 9명은 불구속으로 풀려 나가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분분하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

난 2010년부터 지난 31일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1004명으로, ▲2010년 258명 ▲2011년 277명 ▲지난해 329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벌써 140명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광주 5개 경찰서 중 서부경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부경찰 73명 ▲광산



용봉·광산·수완지구 등 광주의 대표적 유흥가 치안을 맡고 있다 보니 술에 취해 경찰 등에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술기운에 공권력을 경시,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대다수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데다, 구속 인원은 줄고 있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해 단순히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 등 경미한 방해 행위나 소극적인 방해 행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건 자칫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예가 있다. 광주경찰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 인원은 ▲2010년 34명 ▲2011년 24명 ▲지난해 13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경찰의 무리한 공집방해 혐의를 지적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만취 운전 중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36)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씨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

반) 행위만 인정하고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특수 공용물건 손상)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집방해 혐의 적용 문제를 놓고 "공권력 강화를 위해선 더욱 강경하게 적용해야 한다", "과도한 남발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공집방해 적용 기준을 경찰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니웃침 (8861) 김장두



## “휴~”

안전벨트·카 시트가 휴가길 가족 '참사' 막았다

구레 산동면 고속도로서 충돌사고 인명피해 없어

안전벨트와 유아용 카 시트가 휴가길에 오른 가족들의 큰 불행을 막았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 35분께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방향 41km(순천 기점) 지점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다.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 경찰관들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전복했고 어린이들도 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큰 인명피해를 직감,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용차에 탄 가족 4명과 화물차

운전자 등 5명은 이미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눈앞에 펼쳐진 '반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승용차에 탄 어머니(37)는 이마와 어깨에서 피를 흘렸지만 비교적 양호했고 아버지(37)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4살 된 딸은 어머니 옆에서 맑은 눈을 깜빡이며 놀고 있었고 8개월 된 딸은 의자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들 가족은 전주에서 여수 엑스포장을 관람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운전석,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큰딸은 조수석 카시트, 작은딸은 뒷좌석 카시트에 타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모유수유가 좋아요” 제22회 세계모유수유 주간(1~7일) 첫날인 1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광주시 북구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분실 스마트폰 1만~20만원씩에 구입 3억원어치 해외 밀반출 ... 4명 구속

광주서부경찰 35명 검거

분실·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할값에 사들여 해외에 팔아넘긴 스마트폰 밀수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도난·분실 스마트폰 약 3억원 어치를 구입,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장물조직 국내 총책 강모(33)씨와 알선책 이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대구 등지에서 할값에 사들인 시가 2억 8000여만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347대를 중국 등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강씨를 총책

으로 알선책, 중간책, 하부 수집상, 밀수출업자가 역할별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일당 10~15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장물 수집상을 통해 광주와 대구 터미널과 유흥가에서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분실 스마트폰 등을 대당 1만~20만원에 매입한 뒤 해외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과 상무지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청소년 등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던 수집상들을 붙잡은 뒤 이들 진술을 토대로 5개월여 동안 광주와 대구 등에서 수사를 벌여 총책인 강모씨까지 붙잡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전군표, 'CJ서 30만 달러 수뢰' 조사

송광조 서울국제청장 사표

CJ그룹 측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군표(59) 전 국제청장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청장은 국제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전 전 청장을 상대로 수뢰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며 CJ측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고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국제청이 2006년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 CJ측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송광조 서울지방국제청장이 CJ측으로부터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송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청장은 자신의 처신에 문제 되자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 시인은 1일 오전 10시 40분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제 혐의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장롱 속에서 대마초 재배하려다...

○...대마초를 피우려고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자를 구입, 장롱 속에서 대마를 재배하려 한 30대 영아학원 강사가 최고량.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는 1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을 목적으로 종자를 구입, 재배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영아학원 강사 박모(39)씨를 구속기소. ○...검찰조사결과, 스페인에서 태어난 박씨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얻은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뿐 아니라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 종자 29개를 구입, 원통장통에 화분과 등열기구를 설치해 직접 재배하려 했다는 것.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피고인에 욕설 여검사 '죄 안됨' 처분

검찰시민위 결정 따라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일 법정에서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대응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된 A(여·30) 검사를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검사를 고소한 B 씨가 재판 중 증인에게 20차례, A 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검사가 우발적으로

욕설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 이에 앞서 검사나 4급이상 검찰일 반직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광주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는 당시 법정외의 정황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민위는 검사의 품위손상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권유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A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5

##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록기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학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학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